

“시민 56%,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

연금개혁공론화위,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인상에 80.4% 동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론’을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속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론’을 두고 논의했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론을 택했다. 재정안정론을 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42.6%였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1.3%를 보였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 59세에서 64세로 인상하는 것에는 80.4%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7.7%,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안은 출산쿠폰제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82.6%)과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기간으로 확대

한다는 내용(57.8%)이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 기능)와 기초연금의 수급범위 현행 유지,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가 52.3%,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 기능) 현행 유지,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 및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45.7%로 나타났다. 두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이 오차범위(±4.4%p) 내에서 팽팽했다.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자 ‘정부와 당사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적극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안’이 88.3%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을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지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보험료를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88.5%, ‘급여 일정기간 동결’에 동의한다는 응답자 63.3%로 나타났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묻는 항목에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 92.1%,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91.8%로 모두 90%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에는 기금 고갈 연장 시점에 대한 부가 문항도 포함됐다.

현행 2055년에서 소득보장론을 운용할 경우 고갈 시점이 2061년으로 재정안정론을 적용할 경우 2062년으로 미룰 수 있다. 1년 차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소득보장론으로 개혁 시 2038년 기준 누적 적자액이 702조4000억원까지 늘어나는 반면 2안은 1970조원 감소하게 된다.

기금고갈 연장 시점에 대해 가장 길게 제시한 2080년 또는 그 이후를 택한 응답자가 2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70년까지 연장’이 17.2%로 높았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퇴직금 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해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항목을 택한 응답자가 46.4%로 가장 높았다.

김상균 위원장은 “설문조사에 대한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며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했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뉴스스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 17일과 18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3년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농협이 사무소 부문 4개 농축협, 개인부문 11명의 직원이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2023년 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전북농협 4개 사무소와 직원 11명 수상 영예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지난 17일과 18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3년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농협이 사무소 부문 4개 농축협, 개인부문 11명의 직원이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연도대상은 한 해 동안 전국 최고의 보험 판매 실적을 기록한 농축협 사무소와 직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전북농협은 사무소 부문 △구이농협(최민열 조합장) △김제원예농협(김광식 조합장) △순창농협(김성철 조합장) △남원농협(박기열 조합장) 등 4개 농축협이 연도대상 수상의 영

광을 안았고 개인 부문 △은상(1명) 박은영 과장(구이농협) △동상(2명) 박현진 지점장(전주농협), 강수인 지점장(홍덕농협) 사무소 부문 4명 김수경 지점장(남원농협) △챌린지상(7명) 김현아, 배성란, 양숙희, 박재석(이상 남원농협), 임연숙(순창농협), 이미화(익산원예농협), 유태형(정읍농협)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남원농협(박기열 조합장)은 이번 사무소 부문에서 공로상을 수상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생명보험 연도대상 5연속 수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전북농협 최고의 사무소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 /김옥기 기자

농진청 서효원 차장, 수박 재배 농가 찾아 생육 상황 살피

안정적 생산 기술지원 강화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22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와 부직원 수박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5월부터 본격 출하될 논산 수박 작황을 살피고, 유통·판매 계획을 들었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22일, 논산시 소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부직원 수박 재배 농가들을 방문해 수박 작황을 살피고, 유통·판매 계획을 들었다.

다. 이 자리에서 올해 논산 수박이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생육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박 재배 농가를 찾은 서 차장은 2주 뒤 수확할 수박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며, 지난겨울과 봄철 이상 기상으로 재배상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었다.

서효원 차장은 “식물 광합성을 유도하고 착과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광이나 탄산가스 공급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품목별 기술지원단이 작목별 생육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강화해 농작물 안정생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차장은 성동면으로 이동해 2022년 귀농한 후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에서 딸기를 재배하며 딸기 간편식 개발 가족 체류형 수학·체험 프로그램 등 농촌융복합산업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인을 만나 격려했다.

/김옥기 기자

농협 장수군지부,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준오)는 장수군(군수 최훈식),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 NH농협순해보원전북지역총국(총국장 전경애), 함께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청년농사 기원을 위한 2024년 영농지

원 발대식 및 일손돕기를 최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대식에 이어 장수읍 노곡리 사과농가에서 사과 눈꽃 따기 작업을 했다.

농촌 고령화,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은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본격적인 일손돕기 출발을 알리는 영농지원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

김준오 지부장은 “많은 농업인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경진원,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이하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돌출·도약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22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2023년 돌출·도약기업의 세부과제 선정기업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본 설명회에서는 24년 과제의 세부일정 안내, 사업비 운용 매뉴얼 및 최종 보고서 작성 등 필요한 정보를 담아 진행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비 관련 지침과 비목별 집행 및 정산 유의사항 안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돌출기업 A대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알리게 되어 사업비 불인정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돌출·도약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22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전했다.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전북도의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차별화된 정책이다. 5단계(돌출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 촉진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